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努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런 同窓會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映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1】月刊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1월 1일

第202號

1995

21만동문 예지로 조국의 미래 연다



朗村 洪承敏 作 「故郷山川」中에서

알림

本報는 지면쇄
신을 위하여 2월
호(제203호)부터
가로쓰기를 시행
합니다.

- ◆신년사(金在淳회장·金鍾云총장) 3면
- ◆冠岳春秋 4면
- ◆느티나무廣場(李年憲 MBC기획조정실장)
베테랑을 찾아서(金正萬 서울대공원 동물부장) 10면
- ◆추억의 앨범(羅碩昊 변호사)
모임탐방(의대8회) 11면

주요기사목차

- ◆서울대 同門에게 告함(權舜赫 학술원회장)
서울대를 빛낸 사람들(安敬源 MIT大박사) 12면
- ◆뜨락(安金惠·鄭英善동문) 16면
- ◆기획기사(奎章閣)
문화단신 17면
- ◆모교소식 25면

財團法人冠岳會

아듀! 甲戌年



▲本會歲年회에서 金在淳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金회장 "서울대인 세계로 옹비해야"
金종장 "우수대학원생 혜택 폭넓혀"
李총리 "세계화 부합하는 국가해야"

本會는 구랍 20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1994년 회차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金在淳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金종장 부회장이 회차보고를 했다. 李元馥 총리는 "세계화 부합하는 국가"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마 피 이

李元馥

1995

계화

서울대의 新年과제

이날 金在淳 회장이 "모교의 현상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우수대학원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명초'는 '신명초'를 주제로 연설했다. '신명초'는 '신명초'를 주제로 연설했다. '신명초'는 '신명초'를 주제로 연설했다.

冠岳春秋

먼저, 회차의 새해를 맞아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21만명의 동창회원과 가족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금년에는 회원 모두가 동창회와 적극 참여해서 '모래알 동창회'가 '汚名'을 씻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각히 맹세한다. 다행히 94년도 총동창회理事를 2천6백명에서 1만1천1백40명으로 증원, 회기전으로 확대편성되고 동창회보도 5만부에서 5만8천부로 늘려 발행하고 특히 美州동창회보도 복간해서 매월8천부씩 발행하는 등 동창회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힘썼다. 지난 12월20일 열린 동창회 송년모임에서 金在淳 회장이 '94년은 국내외의 동창회원들이 모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한단계 높인 한 해였다'고 자평한 것은 그만큼 활황과 성취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의 총동창회비 모교와 재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1백

「모래알同窓會」의 汚名을 씻자

다. 이제 남은 것은 전전뿐이다. 이를 위해 총동창회가 마련한 금년도 3대과제와 10대실사업은 꼭 이뤄져야 할 것이다. 먼저 재원이 확보돼야 모교에 대한 지원이나 장학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기왕에 사 용하는 신용카드로 서울대출신은 반드시 서울대동창회카드를 사 용하면 개인적인 한도도 손해를

49명의 재학생에게 1억2천2백만 원의 장학금을 주었고, 모교발전기 금 2천만원을 모아 학생과 교수를 위한 장학금 지원했다. 특히 동창회 재원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국민신용 카드사업을 시작, 이어 5천대를 발급했고 앞으로 1단계 목표인 5만대를 발급하면 연간 5, 6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동창회가 활성화 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교를 지원하고 동창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금년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21만 서울대인 모두 동창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재원이 확실해지면 모교지 원은 물론, 동창회원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다. 동창회 사무처가 마련한 금년도 사

를 두어 기업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동창회를 위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사안별로 상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능별 지역별 기능별 로 동창회 결정을 지원해서 총동창 회의 위상을 높이고 美州나 구라파 등의 해외지부와 직장지방지부를 순방해 활동을 격려하도록 돼있다. 또한 우리 동창회가 주동이 돼 결성

회를 발족해서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신규회원으로 찾아내는 데도 적극적인 사업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세워놓 아도 전체 동창회원의 참여와 협조 없 이는 沙上樓閣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창회원의 동창회 에 대한 의식이다. 모교를 사랑하고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아끼는 마음! 그래서 동창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마음 없이는 동창 회가 발전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시 점에서 왜 서울대동창회가 '모래알 동창회'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반성 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출신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政界나 學界, 財界, 언론계 등에서 모두가 重責을 맡고 있고 이 나라는 움직이는 재력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모두가 훌륭하다. 그런데 동창회는 他 대학에 비해서 그 반대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대출신의 동창 회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 인 것 같다.

미국동창회 모임 비등

在美서울大同窓會(회장 姜洙祥)는 지난 11월 26일 시카고 라디슨호텔에서 제 1회 「동창회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재미동창회가 90년 창립된 이래 처음으로 각 지역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시카고 일원에 거주하는 동문뿐만 아니라 멀리 위스콘신, 미네소타, 뉴욕, LA에서도 1백50명의 동문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

姜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재미 서울대 동창회 제1회 「동창회 밤」 개최

본회 金在淳회장의 「동문간의 정과 영을 굳건히 하고 모교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로 동창회 본연의 임무이며 여러 동문들이 이 국장에 건너와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선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이란 축사가 대독됐다.

이어서 he지역에서 참석 한 동문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각 지역 대표들은 지역적인 특성과 동창회 활동을 보고하며 서로의 친목을 다졌다.

한편 「동창회 밤」 행사 전

을 통해 제14대 회장에 차 시카고支部同窓會(회장 姜和英)는 지난 11월 26일 시카고 라디슨호텔에서 1백5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개선을 통해 제14대 회장에 차

뉴욕지부 신임회장에 吳麟錫동문 추대

뉴욕支部同窓會(회장 李文輝)는 지난 10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 임원개선을 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회장에 吳麟錫(62년 법대졸)을 추대했다. 임원으로는 문 부회장에 권태전, 이재덕, 유영근, 조진욱, 송학민, 사부총장의 이재덕, 재무에 오영식, 감사에 황관익, 유준식, 유준식 동문이 선임됐다.

또한 회계이사회의 임원개선에 이사회장에 金榮德(58년 공대졸)을 유임했으며 부이사장에 李典九(60년 농대졸), 동행(57년 의대졸), 김사(57년 의대졸), 김사(57년 의대졸)를 유임했다.

한편 회계이사회의 임원개선에 이사회장에 金榮德(58년 공대졸)을 유임했으며 부이사장에 李典九(60년 농대졸), 동행(57년 의대졸), 김사(57년 의대졸), 김사(57년 의대졸)를 유임했다.



▲李洪九국무총리



▲金 應 통일·부총리



▲洪在馨재경·부총리

구립 18일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金泳三대통령은 국무총리로 李洪九(53년 法大入) 부총리를 임명 한데 이어 23일엔 전면개각을 단행, 서울대출신들이 대거 각료에 기용됐다.

이번 개각에서 23개 부처 중 국무총리를 포함 15명의 동문이 장관에 임명됨으로써母校가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동량의 산실」임을

동문 15명 장관에 임명

무부장관, 金鎔泰내무부장관, 吳 明진실교부장관, 曺尙銘정보통신부장관, 朱煥植문화체육부장관, 安又萬법무부장관, 崔仁基농수산부장관, 朴在潤통상산업부장관, 李炯九노동부장관, 鄭根謨과학기술부장관, 金基錫법제처장관등이다. (별표 참조)

청와대 비서진

한편 전면개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도 대폭 개편됐는데 비서실장에 韓昇洙(63년 行大院卒) 주미대사가 취임했으며, 신설된 정책기획 수석비서관으로 모교 朴世逸(70년 法大卒) 교수, 외교안보수석에는 柳宗夏(59년 文理大卒) 주

內閣同門 명단

(고득신임)

職位	성명	학력·약력
總理	李洪九	53년 法大入·서울대교수·대통령정치특보 駐英대사·통일부총리
財經院	洪在馨	60년 商大卒·외환은행장·재무부장관 경제부총리
統一院	金 應	58년 法大卒·외국어대교수·적십자회담자문위원·안기부장
外 務	孔魯明	61년 法大卒·외무부1차관보·駐러시아대사 駐日대사
內 務	金鎔泰	58년 法大卒·조선일보 편집국장·국회재무民自黨원내총무
法 務	安又萬	60년 法大卒·법원행정처장·대법관·변호사
文 體	朱煥植	61년 師大卒·법원행정처장·국회재무장무수석·공보수석
農 水 產	崔仁基	66년 法大卒·내무차관·民自黨나주지구당위원장
通 產	朴在潤	63년 商大卒·서울대교수·청와대경제수석재무부장관
通 信	景商鉉	56년 工大人·한국전자통신연구소장 체신차관
勞 動	李炯九	63년 文理大卒·건설차관·재무차관 산업은행총재
建 交	吳 明	66년 工大卒·EXPO조직위원장·교통부장관
科 技 處	鄭根謨	59년 文理大卒·한국과학재단이사장 과기처장관
政 務 2	金長淑	58년 藥大卒·평통자문위원·民正黨정책위의장
法 制 處	金基錫	64년 法大卒·부산지검장·법무차관 서울고검장
大 統 領 秘書室長	韓昇洙	63년 行大院卒·서울대교수·상공부장관 駐美대사

내각·청와대 비서실 대폭 개편 동문들 대거 진출...동량의 산실 입증

경제수석과 金榮秀(64년 法大卒)민정수석, 崔洋夫(68년 農大卒)농수산수석이 유임됐고 金錫友(67년 法大卒)의정부서판이 유임됐다.

또한 26일에는 차관급 외 廳長인사가 단행됐 다. 차관 20명 중 12명의 차관 13명 중 4명, 차관급 유임대사가 기용됐다.

이와 관련하여 수석비서관으로 韓利憲(68년 商大卒)가 임명됐다.

또한 26일에는 차관급 외 廳長인사가 단행됐 다. 차관 20명 중 12명의 차관 13명 중 4명, 차관급 유임대사가 기용됐다.

이와 관련하여 수석비서관으로 韓利憲(68년 商大卒)가 임명됐다.

차관급 인사

또한 26일에는 차관급 외 廳長인사가 단행됐 다. 차관 20명 중 12명의 차관 13명 중 4명, 차관급 유임대사가 기용됐다.

이와 관련하여 수석비서관으로 韓利憲(68년 商大卒)가 임명됐다.

신임회장에 金石基동문 선임

역사 속에 뿌리내리고 살면서
흔쾌하고 좋은 이웃으로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이라고 행
사취지를 밝혔다.

보내는 이 마음도

[illegible]

이대 포대 덕대

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졌다.

本會 鄭宗澤, 金鍾玄, 尹錫鎔, 崔鍾泰, 尹錫喆, 尹桂燮, 趙士淳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鄭宗澤, 金鍾玄, 尹錫鎔, 崔鍾泰, 尹錫喆, 尹桂燮, 趙士淳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최고경영자과정 동년모임이 한데 모여 송년모임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모임은 만찬을 시작으로 하여 姜太熙(37기) 동부의 사화로 1,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는 국민의례,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趙士淳은 인사말을 통해 “12월 심화되고 있는 경제전황속에서도 항상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최고경영인들이 되자”고 말했다. 이어 金鍾玄 총장을 대신한 金鍾鉉 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本會 鄭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새해에도 오만불만을 전승과 발전을 믿고” 말했다.

2부 순서에서는 연세인들이 나와 趙宗奎 회장을 존칭사를 마쳤다.

동물백과사전 金萬동문

주인공.
세월이 흘러 7살 때부터
된 모친의 양육하에 자라
나온 정은. 하지만 대학
「예향」을 졸업한 뒤
「이리」로 전직했다. 한
수의원을 개업했다. 한
민정 이윤이 매달



새해가 되면 유년시
어린 시절의 무수한
미담을 회상한다. 그
때마다 새해의 희망
사람이 있다. 동물의 대
해는 백과사전으로 통
하는 金正萬(58년 수의
대주)과 친서를 대공인
물부장(정은)이 바르

서 부장정은은 동물의
의와 양식을 회상한다
내향의 면지를 즐기
보냈었다. 정은은
전통적 정은은 어
전통적 정은은 어
전통적 정은은 어

1964년 동문회
으로 정은을
으로 정은을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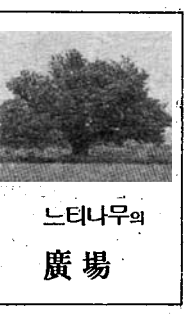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이리』에서

본 밖의 동문과 하더라도 작
별기 하나 잘 봐주면 글과 내
못하는 것이니 우리나도 그
가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바로 정신이요, 문화요, 문
는 것이다. 정신문화의 인
자원, 광물, 산, 광물, 산, 광
높고 강할 수 있는 것이며
국지적 지역에 그치지 않고
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지



드라마의
廣場

李 年 憲
(MBC 기획조정실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치도 사회도
좀더 문명화가 되면 그 문화적 수준
이 높아지는 코리안이라 수출환경
이 더욱 좋아질 수 있다. 제품의
문화 이미지가 결정하고 부가가치



현대의 부국강병책

나를 영지한다.
새삼스럽게도 장군을
여를 잃었다는 것이다.
정제에서도 하는 말이지만 수
출도 나라의 문화 이미지
더 높이기 힘들다는 말이 매우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에서도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지금까지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사고로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사고로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사고로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사고로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사고로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사고로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사고로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사고로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사고로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사고로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사고로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사고로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사고로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다.
물자가 일하는 방출사고로 그
동안 얼마나 방출사고로 지내왔
지 방출사고로 할 일이 많다. 우선
방출의 시정 변화를 한반도에서
도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이제
새해에는 부국강병책이 또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동서남
북으로 방출사고로 방출사고로



— 羅碩昊(法大 11회) 변호사



▲체육대회를 마치고.(맨왼쪽이 필자인 羅碩昊동문)

1956년의 일로 기억된다. 우리 법대가 모교 체육대회에서 당당히 축구부분 우승을 한 감격적인 일이 있는 뒤의 해로 기억된다.

학생회장 선거가 직접선거로 있었다. 당시 출마자는 서울, 경남, 전남

선수로 당시 날렸던 韓壽生군(前환경처차관·경남상고, 부산)과 尹鍾洙군(변호사·보성고, 서울), 朴永佑군(前형가리대사·경북대부고, 경북), 姜大賢군(변호사·서울경북고, 제주) 등이 모여 李大淳군을 학생회장으로 밀기로 했는데 과연 전국적인 규모로 모인 셈이 되었다.

한참 열열히 득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임회장단 선배 하나를 붙들고 우리 지지자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바『사람도 똑똑하고 다 좋은데 전라도 사람이라서...』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오른손 주먹이 그 선배의 왼볼을 후려 갈겼던 기억이 생생하다.

『전라도 사람이 회장되면 학교를 팔아 먹냐, 이자식아!』안중에는 선배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울 코트 플레이로 뽀 결과, 직접선거의 결과는 李군이 13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총유권자는 전학년 직접선거였는데 기억이 없다) 차점 낙선자와 그 참모들이 한턱 내라는 거다. 연건동 학교앞 화학연구소 건너에 중국집이 있었다.

그곳으로 낙선자 및 참모들을 모이게 하고 학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는가. 요리 한 개인가 두 개를 시켜 놓

축구우승 기세 몰아 학생회장 유세

16名「노틀카」상대 호기있던 젊음

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세사람이 경합을 벌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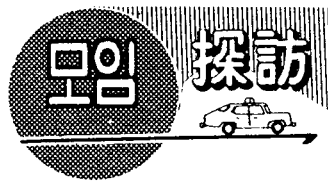
그중 전남 출신이 바로 李大淳(前 체신부장관)군이였다. 당시는 지역별 출신별 대립이 극심한 형편이라 전남 출신은 세력으로 봐서 대단히 열세에 있었다.

이 李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축구를 우승 시킨 멤버중에 우선 모으기로 했다. 당시 축구선수로는 李군 외에 李英秀(변호사)군, 申東元(前독일대사)군, 姜興求(대외경제정책연구소장)군과 나를 포함해서 다섯사람인데, 그중 李大淳과 나는 전남이고 李英秀군은 원래 이북이지만 경북고출신이고, 姜興求군 역시 같은 경북고출신이었으며, 申東元군은 경기고 경기용인출신이고 이밖에 9인제 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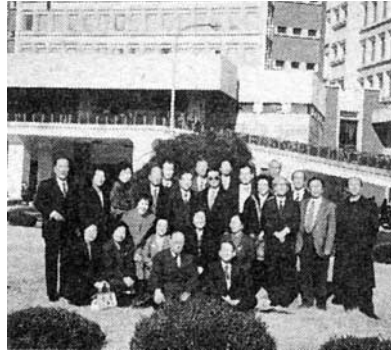
고 「빠갈」을 마셨다. 당선자 李군은 당시 술을 입에 대지도 못했다. 중국집 물컵으로 한잔씩 「노틀카」(한번 받으면 밑에 내려 놓지 못하고 그대로 마시는 방법)로 16명을 혼자서 상대하고 마지막 16잔째 마신 다음 입을 불면서 성냥을 당겨 불을 붙이는 만용을 보였다. 이를 본 낙선자 일행은 다시는 더 큰 요구를 못하고 술금술금 헤어진 못할 가난한 당선자의 쇼가 있었다.

아무튼 이렇게해서 李군을 당선시킨 우리 아홉명은 법대내에서도 여러가지 화제가 많은 재능있는 학생들의 모임이었다.

졸업후에는 각기 바빴고 결혼 후에는 마누라들끼리 매달 모이는 모임이 지금 3년을 계속하고 있다.



醫大8회



▲졸업40주년 기념으로 의대본관 앞에서 기념촬영.

『별써 人生無常이란 말이 심신에 실감케되니 이 어찌된 일이요. 졸업한지도 40년이 되었소. 毛髮은 다 빠지고 몇개 남은 것은 白髮이니 굵주림, 헐벗음, 서러움, 갖가지의 喜怒哀樂. 그 중점은 다 無! 친구들이여!

유행성출혈열 발전, 의학계 대활약

40주년기념 장학금 5백만원 출연

남은 인생 협조, 협력하여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지난 11월25일 개최됐던 의대8회 졸업40주년 기념행사때, 同會 회장을 맡고 있는 金餐玉동문이 한 말이다.

의대8회 동기들은 유난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6.25당시 군의관이 모자라 이듬해 3월 졸업예정이었는에도 11월에 조기졸업, 육군 중위계급장을 달고 군의관으로 참전하기도 했으며, 굶주리며 보름을 꼬박 걷던 기억도 생생하다. 또 고열과 설사로 고통을 받다가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병 자체를 모르던 시절이라 속수무책이었고, 세균전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미국은 한국측 군의관은 접근도 못하게 하고 병의 실체를 알아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하지만 학부때 매년 1등을 하던 李鎬汪(고려대교수)동문이 그 병은 유행성출혈열이며 들쥐가 옮긴다는 것을 발견하고, 백신도 개발해냈다. 최근 李동문은 대중보건에 이바지한 공으로 마히돈賞을 수상했는데, 동기들은 국력이 강했으면 노벨상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의학도로서 젊음을 빛냈던 멋진 기억도 있다. 전국대학보트대회에 출전, 해양대를 물리치고 1등을 차지했고, 개교기념일에 열렸던 축구시합에서도 우승을 거뒀다. 근처 창경궁에서 함께 먹던 도시락의 맛도 잊을 수 없다. 특히 朴基弘동문은 그 당시에도 사진에 조예가 깊어, 이승만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할때 동행할 정도였다고 한다.

66명의 졸업생중 50여명이 생존해 있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고, 12명의 동기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모이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그런데 40주년 행사 덕분에 2명의 동기가 미국에서 찾아왔고, 지난 11월25일부터 28일까지 부부동반으로 대전, 경주, 부산등지로 여행도 다녀왔다. 이번 행사를 위해 朴機夏, 朴基弘, 金正坤, 徐炳俊, 李承徽, 李漢九, 金餐玉동문

이 준비위원으로 애썼으며, 은사 15명을 초청해 기념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5년전 부산에서 공부할때 교정에 있던 30년된 소나무 2그루를 모교의 대에 옮겨 심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그마한 연자방아를 구해 캠퍼스의 조형에 일조할 계획이다. 군이 연자방아를 택한 이유는 후배들이 동글게, 자신을 갈고 닦길 바라는 마음때문이다. 그외에도 同會회원들은 장학금 5백만원과 동창회 비품구입비 1백만원을 모아 출연했었다.

매년 12월 총회겸 송년회를 개최하고 있는 同會는 차기회장에 徐炳俊동문을 선임하고 5년 후, 졸업4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

同門소식

수상

일 한국일보사 13층에서 제 29회 「월간문학상」을 수상. 수상작은 「소설 대동여지도」.

▲李弘圭(29년) 法大卒 평화합동법률사무소 Ⅵ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상했다.

▲李東寧(50년) 文理大卒 포항공대교수 Ⅵ지난달 2월 한국과학기술자클럽 94년도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과학자상」수상으로 선정.

▲姜斗植(51년) 文

▲姜斗植(51년) 文 理大卒 모교 명예교수 本會理事 事 Ⅵ지난 11월30일 「자랑스러운 선남인상」을 수상했다.

▲安在淑(53년) 農 大卒 한국농지개발 연구소 이사장 Ⅵ농

어촌진흥대상(연구개발부문)을 수상했다.

▲崔在錫(53년) 文理大卒 고려대 명예교수 Ⅵ한국사회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사회학회가 수여하는 제1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李根熙(56년) 商大卒 한양대교수 本會理事 Ⅵ11월25일 개최된 제20회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한국품질경영학회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

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辛大用(57년) 農

大卒 한국자유기고가협회이사장 Ⅵ지난

달 31일 농업수산부를 정년 퇴임하면서 모범농업인 표창, 농수산부장관을 수상했다.

▲具聖會(69년) 保 大院卒 서울보건전문대교수 本會理事 Ⅵ11월19일 우리나라 보건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보건협회로부터 제8회 「보건대상」을 받았다.

▲金英淑(69년) 保

大院卒 서울보건전문대교수 本會理事 Ⅵ지난 달 6일 바르게 살기 운동등 5주년 전국대회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수상.

▲徐東喜(70년) 美

大卒 한국대교수 Ⅵ지난 달 10일 산악인 자인 포장개발에서 제22회 한국디자이너협회 회원전 공예부문 작가상을 수상.

▲郭贊浩(71년) 新

大院卒 평화통일자문회의성동구협의회사무국장 本會理事 Ⅵ12월12일 고대경제인회 창립 15주년 기념 축하연에서 유공회원으로 공로장을 수상.

▲李海瓚(72년) 文 理大卒 국회의원 本會理事 Ⅵ한경동

한경이론 94학년도 상

공제회 시도지부장회의에 참석했다.

▲鄭鏞斗(57년) 文理大卒 한림대강사 本會理事 Ⅵ바울학회 초대회장에 선임됐으며, 「겨울인 한국인명사전」(성광문화사)을 출간.

▲金英雨(57년) 師大卒 수원대교수 本會理事 Ⅵ지난 달 29일 후학을 보듬기 위한 기념 논문집을 발간했다.

▲成旭基(57년) 商 大卒 前 총은행장 本會理事 Ⅵ미국 치타주립대학의 초청으로 3개월간 「미국의 금융제도와 경영」에 관한 연구를 마치고 지난 달 25일 귀국.

▲金昌悅(58년) 法 大卒 방송위원 本會理事 Ⅵ지난 달 23일 프레스센터 12층에서 방송문화의 진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간 학계 및 시청자단체가 공동으로 연구 해온 「94년 방송문화지표 공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李孝春(58년) 獸 醫大卒 서울시수의사회 명예회장 本會理事 Ⅵ11월18일 수의과대학 초청으로 11월18일 수의과대학 초청

조경사회 주최로 94년도 추

조경사회 주최로 94년도 추

▲金太永(62년) 文 理大卒 제주전문대교수 Ⅵ최근 저서 「제주도 관광연구」와 「현대관광개론」 개정판을 출간.

▲辛建(63년) 法 大卒 前법무차관 Ⅵ전북은행 서초지점 2층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했

다.

▲李相河(63년) 法 大卒 한국내셔널프운영위원

장 本會理事 Ⅵ지난 달 15일 경기도 인천 소재 고아시설 성애원과 노인시설 인천한나원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李柱仙(64년) 師大卒 한국철스카우트총재 本會理事 Ⅵ지난 달 15일 동화관 2층에서 한국철스카우트 훈련원 개원식을 가졌다.

▲朱良子(66년) 大 學院卒 국회의원회관 사회의실에 서 불교방송 아침칼럼 「자은목소리」가 통하는 세상」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權五俊(69년) 農 大卒 韓國造景士會 本會理事 Ⅵ한국

전자 및 컴퓨터 부문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인 인사중에서 임선하는 학회 「펠로우」에 위촉.

▲李圭日(57년) 文 理大卒 前駐에만대사 Ⅵ駐에만대사와

駐고메베총영사 근무를 마치고 귀국,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에 교수로 위촉됐다.

▲潘成雨(59년) 法大卒 韓僑生會 Ⅵ홍콩생명사장에 취임했다.

▲申允植(59년) 文 理大卒 大正모정 Ⅵ하버드

대학교수 Ⅵ최근 연세대에 서 열린 한국목어농민회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에 선임.

▲李培浩(59년) 工大卒 중앙대전산대학원장 Ⅵ지난 달 8일 건설공인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에 취임했다.

▲崔俊成(59년) 文 理大卒 충남대교수 本會理事 Ⅵ한국이

이화학회 회장에 선임됐다.

▲俞東濤(60년) 農 大卒 한국단미사료 협회상근 부회장 本會理事 Ⅵ11월25일 同會 제 16차 정기총회에서 상근 부회장에 선임.

▲李根茂(60년) 文理大卒 아주대사회과학대학장 本會理事 Ⅵ지난 달 16일 열린 한국 사회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임.

▲李英俊(61년) 法大卒 변호사 本會理事 Ⅵ12월1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94년도 재정추진고 등창회 정기총회

에 참석했다.

▲李太一(68년) 法大卒 동아대교수 Ⅵ지난 달 7일 동아대 송학관 퍼스 교수회관에서 열린 총장선거에서 제9대 총장에 피선.

▲李大亨(71년) 工大卒 심재종합건축대표이사 Ⅵ최근 흥사단본부 강당에서 열린 흥사단 서울시지부총회에서 지부장에 선임됐다.

▲曹裕根(71년) 工大卒 모교교수 Ⅵ12월2일 정보과학회 부회장에 선임.

▲襄恩出(72년) 經大院卒 前 국제전선대표이사 本會理事 Ⅵ최근 럭키금성그룹 부사장

으로 전보.

▲徐維憲(73년) 醫 大卒 모교교수 Ⅵ신경외과학회의 기관지인 「뇌신경학회잡지」 편집위원에 위촉.

▲柳河永(74년) 工大卒 Ⅵ11월1일 일진그룹 유원현지법인인 일진유편 SA 대표이사

에 취임.

▲朴亨錫(74년) 經大院卒 前 서울시재무국장 環大院同窓會 Ⅵ최근 종로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柳元熙(75년) 農大卒 제일제당농식품 Ⅵ제일제당 농

동식품 이사보로 승진.

▲金恒默(76년) 大 學院卒 부산대교수 Ⅵ지난 달 13일 하바

드대의 동창, 발문교수, 연구원 출신들의 모임인 부산「하바드클럽」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임.

▲金殷相(78년) 經營大卒 前 로더증권 本會理事 Ⅵ모간스

로더증권 本會理事 Ⅵ모간스

'보라카이'斷想

뜨락

나의茶屋

지난 12월 중순, 현지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의 초대로 필리핀에 가게 되었다. 그날은 무척 추웠기 때문에 어떤 옷을 준비해야 할 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대충 준비해 친구들과 함께 떠났다. 약 4시간 하늘을 날아 마닐라 공항에 도착, 그 친구를 반갑게 만나서, 그 다음날 함께 우리의 목적지인 '보라카이'행 비행기로 30여분, 버스로 2시간을 달린 후, 다시 바닷물 세례로 흠뻑 젖으며 20분. 배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다.

'보라카이'섬은 자연 그대로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이었었는데, 우리는 종려나무 터널 사이의 원두막같은 숙소에서 여장을 풀었다. 사람이 붐비지 않아 조용한 모래밭과 깨끗한 바닷물은 우리들 모두 나이도 잊고 바다로 뛰어들어 한껏 즐기게 했다. 밤이 되니 마침 보름인지라 아자나무에 걸린 둥근 달이말로 한 폭의 그림과 같았고 그 밝은 백사장(문자 그대로



安金惠

(62년 藥大卒·약대 동창회부회장)

음 그토록 낙후된 것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이었다. 기후나 자원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보다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발전하지 못한 것을 보니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 나라 국민들은 빈부의 차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鄭英善

(73년 家政大卒·차문화 연구소장)

내가 스무살쯤 되었을 때 나는 이런 멋진 집에 살겠다고 생각했다. 2층 저택에 넓은 잔디밭,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수영장, 멋진 수목들과 벤치...

당시의 우리집은 가파른 산동네의

함께 충청도 시골에 가게 되었다.

감이 꽃처럼 널려 있는 마을을 지나 개울의 다리를 건너니, 오륙십세 정도 돼 보이는 주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아, 그런데 내가 꿈에도 그리던 그 다육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은가!

크지 않은 흙벽집, 잘 다져진 마당, 과일나무, 그리고 거위들, 집옆의 채마밭... 그 집 마루에서 먹은 점심밥은 꿀맛이었고, 손수 끓여 주신 차의 향기와 맛은 그 분위기를 자아냈다.

돌아올 때쯤 나는 그 집 주인에게 그런 집을 마련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넌즈시 물었다. 그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부근은 종종 땅이라 살 수가 없어요. 이 집은 본래 빈 집인데 조금 고쳐서 공짜로 쓰고 있지요. 앞으로 20년만 더 빌려 쓰면 뭇텐데 뭐하러 돈주고 삽니까? 저기 있는 빈 집도 내가 쓸 참인데 좋으시면 와서 사십시오. 저 개울도

자연 그대로의 천국같은 섬

빈부차 심해도 위화감 없어

WHITE SAND(입)에 둘러앉아 우리들은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다. 또한 모든 문명의 공해로부터의 탈출이 그토록 좋을 수가 없었다. 밤에는 심한 바람소리(나룻잎에 부딪혀서 나는)에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날은 배를 타고 그 섬을 둘러다 보다가 또다른 아름다운 해변에서 수영도 즐기고 준비해간 점심을 먹으며 '이 곳이야말로 바로 천국이구나'하면서 서로를 좋아했다.

'보라카이'를 오가며 잠시 지나쳐본 마닐라 시내의 모습은 매연으로 온통 검은 색이었고, 교통혼잡은 우리 서울보다 더욱 심해 보였다. 60년대에 우리보다 잘 살았다던 그 나라가 요즈

부자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한다는 이야기는 놀라웠다. 우리 사회는 가진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너무 많고 위화감이 크며, 불신의 골이 깊어서, 인정이 메마르고 사랑은 고갈된 사회처럼 느껴짐은 나만의 생각일까? 앞으로는 우리 서로 사랑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인정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알림

「뜨락」은 여성동문을 위한欄입니다. 직장 또는 가정에서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전화: 703-5954~6)

진정한 소유는 마음속에 존재

茶와의 만남으로 自足感 터득

다닥다닥 붙은 집들 중 하나였으니, 그 꿈은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결혼을 해 열심히 사는 동안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 꿈은 재구성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것은 차와의 만남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차와 함께 사색하고 차와 함께 놀, 그러한 집이 필요했다.

그래서 저택과 수영장은 사라지고 한옥과 널찍한 흙마당을 떠올리게 되었고, 낮은 담을 사이에 두고 초가삼간 茶屋을 하나 지어야겠다고 생각. 삼사년 전 가을 어느날, 산골에서 수행하며 차를 무척 즐겨 마신다는 분을 만나기 위해, 나는 다른 두분과

내 것이고 앞산도 내 것 아닙니까?』 그렇다. 나의 소유물이란 결국 내가 있는 동안 빌려쓰는 것에 지나지 않구나.

차가 존재의미를 갖는 곳은 현재의 바로 여기가 아닐까? 비록 시멘트 상자에 종이를 붙인 방이지만 창도 있고 책상도 있으며 다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주변의 경치일랑 동네공원과 충청도 산골에 있으면 어떠랴.

자르르르 썩아, 찻물 끓는 소리는 문경새재의 산골 물소리로 들리고, 잔에 따라지는 찻물을 보노라면 나는 어느새 호숫가 나무아래 앉아있게 된다. 진정한 차와 더불어 있어야 할 공간은 나의 마음속이 아닐까?

기획 奎章閣

燕나라 청년이 한단에서 걸음걸이를 배우다, 자기나라 걸음걸이를 잊어버려서 기어왔다는 고사는 세계화의 물결이 大勢를 이루는 요즘,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세계화에서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완전 소화하여, 발전적으로 재창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굴해 세계화시키는 작업이다.

고서 한 권이 지난 93년 9월 미테랑 프랑스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韓·佛 국민들간의 문화적 쟁점이 됐던 일이 있다. 이 책은 강화도에



조선후기 문화의 정수 담아 예산·공간·인사문제가 관전

있던 外奎章閣에서 보관하던 많은 典籍중 하나인 「휘경원 원소도감 의궤」이다.

본보에서는 우리 문화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母校內에 있는 규장각의 여러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1. 규장각의 유서와 기능

규장각은 숙종때 설립됐으며, 국왕과 관련된 여러 문서를 보관하는 기능을 가졌다.

正祖는 이런 단순하며 유명무실했던 규장각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신교도서를 보관케 하고 도서관의 기능을 갖추게 했으며, 심지어 정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구를 대폭 확대했다. 1776년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이 설치된 이래, 현재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13종 3천8백61책을 포함, 26만점에 달하는 고문서와 도서 및 冊板을 소장하고 있으며, 국학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2. 母校로 移管하게 된 경유

규장각은 高宗때까지도 명맥이 유지돼 왔으나, 일제가 합병하면서 폐지시켰다.

총독부는 규장각의 도서를 접수했다가 京城帝大가 설립되자 圖書를 경성제대로 이관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가 설립되자 모교로 이전됐다. 모교에서는 1992년 건물을 신축하여 규장각의 도서를 보관케 하는 한편 규장각을 독립기구로 편성, 복원시켰다.

3. 규장각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한국고대사는 자료가 거의 없어 연구자가 편린적 자료를 모아 추론 형태로 연구하는데 반해, 조선시대의 문헌은 비교적 많이 남아있어 과거를 고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의 관건은 조선후기문화의 精髓를 담고 있는 규장각의 관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2년 규장각이 독립하면서 초대관장으로 부임한 韓永恩((62년 文理大卒)관장은 크게 3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다.

첫째,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대중화는 물론 연구도 쉽지않은 형편이다. 현재 자구적 노력으로 정부 및 민간단체로부터 10억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했고, 특별연구원을 채용해 시리즈 출판물을 내고는 있지만 대중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둘째, 공간부족이다. 많은 고서와 목판을 해인사 대장경처럼 보관하고, 박물관화할 수 있는 목판고 설치가 시급한 형편이다. 일례로 경복궁과 창덕궁의 건물설계도나 대동

여지도같은 대형도화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축소복사해 전시하는 실정이다.

셋째, 인사제도의 불합리성이다. 현재 규장각은 관장, 사서, 학예사로 구성돼 있다.

학예사는 대부분 국사학과 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체계가 전혀 없다. 따라서 임기가 차거나 학교에 보직이 나면 떠나므로, 책의 내용은 물론이고 책의 존재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규장각은 책자를 해석하고 註釋등을 달아 출판 하는 연구기능과 그것을 통한 도서관 열람기능을 완전히 갖춰야할 것이라고 韓관장은 거듭 강조했다.

한편 규장각의 위상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MBC참사특집 다큐멘터리 「규장각」을 취재 방송한 郭東國(86년 社會大卒)프로듀서는 「기존 한국사의 상당부분을 보완해줄 귀중한 자료들이 예산·인력부족으로 死藏돼 있는 형편」이라며 안타까워했다.

新刊

■입의 문화

—金守經 著



모교출판부의 대학교양총서58로 齒醫學교수가 본 口腔의 세계에 관한 저서.

저자 金守經(63년 齒大卒)는 詩文에

도 열성적이어서 수 권의 시집과 수필집을 출간하고 있다.

그는 입을 정신적 형태적이 아닌 승화된 예술로 보면서 예찬론을 펴고 있다. 입은 사랑의 바탕이고 행복의 근원이라고도 말한다. 한편 입의 생리 해부, 질병,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치아가 튼튼해야 전신이 건강해지며 정신적으로도 편안하여 장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대출판부·값3,500원)

■永遠한 꽃의 香氣

—李應百 編



母校 명예교수이며 前同窓會報편집위원이었던 국어학자 李應百교수가 故人이 된 부인 閔瑛媛여사 1주기를 맞아 펴낸 회고

문집이다.

현숙한 부인으로 才氣가 항상 넘쳐 주위의 화제를 이끌면서 詩文을 써왔던 부인에 대한 애절한 경모의 심정이 곁들여진 李교수의 회고문이 이채롭고 인상적이다.

故人의 동료와 선후배, 知己들의 회억의 글과 특히 哀子인 李善中(81년 經營大卒)동문의 「어머니 영전에」 드리는 글은 구구절절 그리움과 존경심으로 일관돼 있어 추모의 극치를 보게 된다.

맹모삼천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자식키우기에 열성을 다했던 고인은 독실한 불자로서도 훌륭히 살아간 발자취를 곳곳에서 보게 된다. 또한 李교수의 간병기는 지순의 경지를 엿보게 한다. 참으로 놀랍고 부부애의 극치를 이룬 장면이다.

(문양사·비매품)

■성공적인 수유법

—魯萬壽·宋敬姬 著



78년 醫大卒, 반더빌트 의과원장인 魯동문과 동년 가정대를 나와 명지대교수인 宋동문 부부가 공동집필한 저서.

母乳授乳가 세계적 추세로 바뀌

公演

■千貞姬 귀국독창회

—1월20일 세종문화회관

87년 음대졸, 밀라노 베르디 국립 음악원을 나와 소프라노로 활약하고 있는 千동문은 재학시절부터 각종 콩쿨에 입상하는등 성악인으로서 천부적 재능을 지닌 재원이다.



국립합창단 단원과 서울대 정기 오페라 공연 「오네긴」에 출연했으며 「슈베르트 가곡의 밤」에도 출연하는등 활동폭이 넓다.

현재 모교음대와 성신여대, 한국 예술종합교에 출강하고 있다.

이날 프로그램은 비발디의 「오라, 오 그리운 이여」, 「내마음까지도 같기같기 찢어버려라」와 롯시니의 「베네치아 요트경주」등과 드뷔시의 곡을 부른다.

—— 바로 잡습니다. ——

지난 201호 5면 국회의원 동문모임 기사중 李孝榮동문은 金孝榮동문의 오자이며, 7면 耳順동문테니스會 기사중 馬景錫본회부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기에 바로 잡습니다.

또 21면 회비납부자 간호대학 명단중 김동식, 김선구, 김형철, 노응옥, 박명호, 이영복, 이종옥, 이택수, 황성식동문은 경영대학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 11월 1일 ~ 12월 3일〉

▲고병철 63 산업銀조사부장
▲구재완 55 선경건설상임고문

· 一般會費 / 2만 원	會費入金 지로번호
· 理事 / 7만 원	및 郵便貯蓄 번호
· 常任理事 / 20만 원	· 지로번호
· 監事 / 30만 원	7500875
· 副會長 / 50만 원 (公議者)	· 무연대제번호
1백만원 (一般)	010017-31-0621566
· 會長 / 5백만원	

▲한필순 ⑥원자력연구심고문
▲홍남표 ⑦(주)한국국토개발

▲김종환 ⑤6 노암

▲김경욱 ⑦5 서울대학교수

▲고병철 ⑥3 산업銀조사부장

▲김종환 56 나암
▲김종양 69 초마

▲중등교육법 제61조

▲고병철 ⑥3 산업銀조사부장

◇師範大學

- ◆ **師範大學**

 - ▲ 장선부 ⑤ 삼천진자사장
 - ▲ 김기태 ⑥ 단국대학교수
 - ▲ 김형우 ⑦ 내소빌리타스학
 - ▲ 김현우 ⑧ 정남교회목사
 - ▲ 김성우 ⑨ 전주부영고
 - ▲ 김성우 ⑩ 단국대학교수
 - ▲ 김태우 ⑪ 장부영교장
 - ▲ 김희봉 ⑫ 연서중교장
 - ▲ 김희우 ⑬ 영재유치원장
 - ▲ 노상훈 ⑭ 부천영고교장
 - ▲ 문병관 ⑮ 한양대학교사장
 - ▲ 문자화 ⑯ 영남대학교학장
 - ▲ 문우익 ⑰ 연희학사
 - ▲ 김현우 ⑱ 서울대학교수
 - ▲ 박정호 ⑲ 단국대학교수
 - ▲ 박희하 ⑳ 경희대학교수
 - ▲ 박해수 ㉑ 사정대학교수
 - ▲ 서병호 ㉒ 충청대학교수
 - ▲ 서인경 ㉓ 영남대학교장
 - ▲ 송부영 ㉔ 중앙대학교수
 - ▲ 신영일 ㉕ 인천대학교수
 - ▲ 신치규 ㉖ 부민대학교수
 - ▲ 안복수 ㉗ 영남대학교수
 - ▲ 안희수 ㉘ 서울대학교수
 - ▲ 안희우 ㉙ 서울대학교수
 - ▲ 오현호 ㉚ 서울대학교수
 - ▲ 오배근 ㉛ 경상대학교장
 - ▲ 오정하 ㉜ 서울대학교수
 - ▲ 오정하 ㉝ 영남대학교수
 - ▲ 오기석 ㉞ 연희대학교수
 - ▲ 이기영 ㉟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㊱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㊲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㊳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㊴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㊵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㊶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㊷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㊸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㊹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㊺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㊻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㊼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㊽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㊾ 서울대학교수
 - ▲ 이기환 ㊿ 서울대학교수

◆ **商科大學**

 - ▲ 장경만 ① 세영은행경영전부
 - ▲ 장경수 ② 안국화재보험사장
 - ▲ 장경우 ③ 태영산업전부
 - ▲ 고학모 ④ 대구부영사장
 - ▲ 권영남 ⑤ 이근영은행경영사장
 - ▲ 권영호 ⑥ 진흥산업과고상부
 - ▲ 김 훈 ⑦ 세무부영임고위원
 - ▲ 김기환 ⑧ 현대은행사장
 - ▲ 김기환 ⑨ 신한은행사장
 - ▲ 김성철 ⑩ 제일은행수문지점
 - ▲ 김수필 ⑪ 유공가시업상부
 - ▲ 김영선 ⑫ 현대인공보험
 - ▲ 김재수 ⑬ 유에니전자사장
 - ▲ 김재호 ⑭ 대원제지부사장
 - ▲ 김경태 ⑮ 한신증권부사장
 - ▲ 김홍남 ⑯ 명진대학교수
 - ▲ 김창호 ⑰ (주)보배전부
 - ▲ 김태우 ⑱ 서울대학교수
 - ▲ 김경만 ⑲ 삼진반도체전부
 - ▲ 김기환 ⑳ 한양은행경영
 - ▲ 남영우 ㉑ 한양은행경영
 - ▲ 남영우 ㉒ 삼진상용카드사장
 - ▲ 맹진성 ㉓ 신보창업부자감사
 - ▲ 민영환 ㉔ 한신은행경제학
 - ▲ 박기환 ㉕ 연세대학교수
 - ▲ 박정호 ㉖ 한양대학교수
 - ▲ 박기환 ㉗ 신개발은행이사
 - ▲ 박기환 ㉘ 대한은행이사
 - ▲ 박기환 ㉙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㉚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㉛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㉜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㉝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㉞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㉟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㊱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㊲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㊳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㊴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㊵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㊶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㊷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㊸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㊹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㊺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㊻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㊼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㊽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㊾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㊿ 한미은행이사

◆ **獸醫科大學**

 - ▲ 장경만 ① 세영은행경영전부
 - ▲ 장경수 ② 안국화재보험사장
 - ▲ 장경우 ③ 태영산업전부
 - ▲ 고학모 ④ 대구부영사장
 - ▲ 권영남 ⑤ 이근영은행경영사장
 - ▲ 권영호 ⑥ 진흥산업과고상부
 - ▲ 김 훈 ⑦ 세무부영임고위원
 - ▲ 김기환 ⑧ 현대은행사장
 - ▲ 김기환 ⑨ 신한은행사장
 - ▲ 김성철 ⑩ 제일은행수문지점
 - ▲ 김수필 ⑪ 유공가시업상부
 - ▲ 김영선 ⑫ 현대인공보험
 - ▲ 김재수 ⑬ 유에니전자사장
 - ▲ 김재호 ⑭ 대원제지부사장
 - ▲ 김경태 ⑮ 한신증권부사장
 - ▲ 김홍남 ⑯ 명진대학교수
 - ▲ 김창호 ⑰ (주)보배전부
 - ▲ 김태우 ⑱ 서울대학교수
 - ▲ 김경만 ⑲ 삼진반도체전부
 - ▲ 김기환 ⑳ 한양은행경영
 - ▲ 남영우 ㉑ 한양은행경영
 - ▲ 남영우 ㉒ 삼진상용카드사장
 - ▲ 맹진성 ㉓ 신보창업부자감사
 - ▲ 민영환 ㉔ 한신은행경제학
 - ▲ 박기환 ㉕ 연세대학교수
 - ▲ 박정호 ㉖ 한양대학교수
 - ▲ 박기환 ㉗ 신개발은행이사
 - ▲ 박기환 ㉘ 대한은행이사
 - ▲ 박기환 ㉙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㉚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㉛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㉜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㉝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㉞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㉟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㊱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㊲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㊳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㊴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㊵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㊶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㊷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㊸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㊹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㊺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㊻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㊼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㊽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㊾ 한미은행이사
 - ▲ 박기환 ㊿ 한미은행이사

◆ **藥學大學**

 - ▲ 박정호 ① 한양대학교수
 - ▲ 장 선 ② 국민은행부사장
 - ▲ 김기환 ③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④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⑤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⑥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⑦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⑧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⑨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⑩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⑪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⑫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⑬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⑭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⑮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⑯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⑰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⑱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⑲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⑳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㉑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㉒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㉓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㉔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㉕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㉖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㉗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㉘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㉙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㉚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㉛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㉜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㉝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㉞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㉟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㊱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㊲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㊳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㊴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㊵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㊶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㊷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㊸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㊹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㊺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㊻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㊼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㊽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㊾ 한양대학교수
 - ▲ 김기환 ㊿ 한양대학교수

◆ **音樂大學**

 - ▲ 김 선 ① 서울대학교수
 - ▲ 박부흥 ② 서울대학교수
 - ▲ 신수정 ③ 서울대학교수
 - ▲ 장해경 ④ 서울대학교수

◆ **醫科大學**

 - ▲ 장경만 ① 세영은행경영전부
 - ▲ 장경수 ② 안국화재보험사장
 - ▲ 장경우 ③ 태영산업전부
 - ▲ 고학모 ④ 대구부영사장
 - ▲ 권영남 ⑤ 이근영은행경영사장
 - ▲ 권영호 ⑥ 진흥산업과고상부
 - ▲ 김 훈 ⑦ 세무부영임고위원
 - ▲ 김기환 ⑧ 현대은행사장
 - ▲ 김기환 ⑨ 신한은행사장
 - ▲ 김성철 ⑩ 제일은행수문지점
 - ▲ 김수필 ⑪ 유공가시업상부
 - ▲ 김영선 ⑫ 현대인공보험
 - ▲ 김재수 ⑬ 유에니전자사장
 - ▲ 김재호 ⑭ 대원제지부사장
 - ▲ 김경태 ⑮ 한신증권부사장
 - ▲ 김홍남 ⑯ 명진대학교수
 - ▲ 김창호 ⑰ (주)보배전부
 - ▲ 김태우 ⑱ 서울대학교수
 - ▲ 김경만 ⑲ 삼진반도체전부
 - ▲ 김기환 ⑳ 한양은행경영
 - ▲ 남영우

21면에

[illegible]

▲김대성	▲김종훈	▲박정원	▲정규오	▲조택식	▲김세수	▲박몽진	▲남철순	◇태국	▲김희주	▲박상배	▲정수남	▲정전광	▲유희선	▲정기평	▲이영숙	▲김두환	▲김인섭	▲구정
▲조영재	▲소병화	▲최정중	▲유영규	▲임진수	▲김대현	▲황부영	▲손병재		▲조정일	▲이경우	▲김선진	▲하용	▲조원희	▲조규창	▲김성배	▲유기희	▲안경자	

母校



개교 50주년 기념관 건립
문화·체육·휴식공간 조성
문화를 위한 휴식공간 조성
문화·체육·휴식공간 조성

관악캠퍼스 정문과 체육
관악캠퍼스 정문과 체육
관악캠퍼스 정문과 체육

장, 불협화음 때 포초시
장, 불협화음 때 포초시
장, 불협화음 때 포초시

「학과·學群別」 폐지

내년 신입생부터 복수전공제 도입키로

자연대학(학장 李仁奎) 과나 학과구분없이 「자연대」로 개칭되며 학과대학부(단위)로 신입생

을 선발, 학사과정을 통합 운영키로 했다.

자연대는 이강(학부제) 학부제 시점의 첫 단계로 지난 14

일 95학년도 신입생부터 4개의 기초과학 공과대학

을 받드시 수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과과정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복수전공제」 도입방안을 마련, 1월 중 대학본부에 제출키로 했다.

자연대 강의棟 재건축

자연대학은 지난 26일 기초과학 연구공간 확충을 위해 96년부터 자연대 10

개 강의棟을 새로 건설할 계획으로 매년 1개棟씩 재건축키로 결정했다.

평생을 묵묵히 사마노리로 고생하며 모은 전 재산 14억원(부동산)을 모교에 기부하기로

신설 내홍을 겪던 尹全秀(67년 공업교육주)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수상했다. 郭秀一(本會 副會長)

학사운영과정통합



두산그룹(회장 斗山, 연구소 기증 朴容昆)은 창업 1백주년 기념으로 20억원 들여 모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를 기증키로 하고 지난 21일 金鍾云 총장에게 기증서를 전달했다.

工大 학술·기술상 선정

朴順子·李在坤 교수 수상

한편 공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내의 인사에게 90년부터 매년 연말

에 수여하는 발전공로상은 趙炳祐(64년 섬유공학주) 유공사업 사장과 李忠九(67년 공업교육주)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수상했다.

한편 공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내의 인사에게 90년부터 매년 연말

한편 공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내의 인사에게 90년부터 매년 연말

한편 공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내의 인사에게 90년부터 매년 연말

한편 공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내의 인사에게 90년부터 매년 연말

「정규중심대학 육성방안」

모교는 지난 12월 11일 법대의 대·중·소 대학을 5~7년제 전문대학으로 전환하고 5년제 대학의 학부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생·건강·환경에 관여하여



장학생들이 尹全秀 부부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장학기금 14억기증 尹全秀씨 부부

장학생들과의 만남의 자리

“큰 일꾼돼 거룩한 뜻에 보답”

계 모교를 기증해 주셔서 저희가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립니다. 「장학금」은 우리 두부의 거룩한 뜻에 보답하고자 모교에 기증했습니다. 尹全秀씨는 대전시에 위 보이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 기쁘고 행복하다. 앞으로 전강하게 공부할 것이 나의 큰 임무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이 참신한 학생이 尹씨 부부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사사를 함께 하면서 노부부의 인생철학과 더불어 후한 대학의 시기를 가졌다. 이이 자리를 마련한 郭秀一(장학이사)은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의 앞으로 사회에 공헌하도록 두부의 뜻을 실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변>